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가 31일 동포초청 리셉션에서 백영중 미주 흥사단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승관 기자>

“소외 동포들에 사랑을”

이희호여사 사회복지상 수상·만찬연설

여성·아동인권 강조 한국학교에 금일봉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31일 USC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국제사회복지상 수상을 시작으로 공식 방미일정에 들어갔다. 이 여사의 이번 미국 단독방문은 한국외교사에 전례가 없던 일로 퍼스트레이디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LA에 도착한 이 여사는 이날 하오 2시 한인및 주류사회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USC 「타운 앤드 가우」홀에서 행한 국제사회복지

상 수상기념연설에서 『한국정부는 과거 성장지상주의가 초래했던 인권소홀과 복지최소화의 폐단을 넘어 성장과 분배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북지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 나누는 삶의 가치가 중요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여사는 이어 하오 4시 숙소인 월서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라가 IMF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하고 『이들

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미주동포들이 계속해서 큰 힘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2월1일 워싱턴DC로 가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47년 역사의 미 국가조찬기도회 초청연설을 하게된 이 여사는 하오 4시30분 한인인사 80여명을 호텔로 초청, 약 40분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LA는 해외 동포사회의 중심이자 한국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라며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미국시민이 돼달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한우성·하천식 기자>